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1. 22.(수) 17:10 배포 2023. 11. 22.(수)

영국 순방을 통해 1.8조원 경제 성과 창출

- 영국 청정에너지 기업, 1조 5천억원 대한(對韓) 투자
-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 2,700억원 계약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중인 11.22.(수) 오전 8시(현지시간),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(①코리오(CORIO), ②비피(bp))이 총 1조 5천억 원(11.6억 달러)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.

①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(GIG)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, 울산, 전남 등에 총 2.9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, 이번 투자를 통해 동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.

②영국의 에너지 기업, 비피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하였으며,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.

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구조물, 터빈,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하고, 발전단지 유지·보수사업에 지역 기업 및 인력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 금번 순방시 투자신고식과 비지니스 포럼 개최(11.22, 경동나비엔, 효성중공업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총 2,700억원 계약 체결)를 통해 총 1.8조원의 성과가 창출되었다.

방문규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엄재영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종형 (044-203-408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